



군종주보

2017년 4월 023일(제820호)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자비하신 주님을 잘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제자들을 찾아 오십니다. 두려움에 문을 잠가 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오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잠겨 있던 문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박해를 받으리라는 두려움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수치심은 그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버리게 만들었고, 세상으로부터 숨어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평화를 빌어주시고, 당신의 일을 할 사도들로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의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도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찾아오심은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한 제자, 토마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좀처럼 잘 믿지도 못하고 신앙을 통해서 명확하고 성공적인 결과만을 바라는

오상(五傷)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참으로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다시금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입니다. 토마스 사도에게 있어서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잔혹한 처형과 죽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수난의 그 크기만큼, 선명한 그 상처의 깊이만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믿음의 증거로 요구되었던 못 자국과 상처가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 사랑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토마스 사도는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바로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서도 울려 퍼져야 할 고백입니다. 오상의 흔적처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세상에 하느님 자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호(비오로) 신부
철벽(육군 제23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사도 2,42-47
회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시 1베드 1,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요한 20,19-31
영 성 제 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진리를 살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본기도(모음기도)

거룩한 미사 중에 언제 맨 처음으로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미사가 시작될 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미사 중에 이행되는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연의 기도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하면 미사 중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제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신자들을 기도에 초대할 때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기도는 라틴어 “모음기도(oratio collecta)”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주례자인 사제가 신자들의 기도를 모두 모아서 바치는 기도라는 뜻에서 그러한 이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고 내포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간결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도는 미사에서 처음으로 바치는 교회의 공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말을 건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느님께 실제로 말을 건네고 있다는 의식을 올바르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위엄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태 6,9; 루카 11,2)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요한 20,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 준 유언이며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자신과 같이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고 있습니다. 동방 교회의 크리소스토모스 전례에서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의 인도문을 소개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한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삼가 아뢰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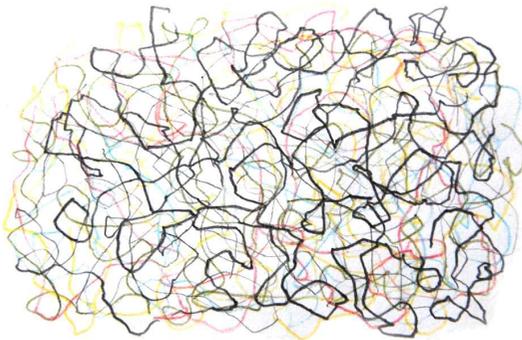
본기도는 “기도합시다!” 하는 사제의 초대 다음에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 이제 공동체가 감히 하느님께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 중에 바치는 기도들, 예를 들어 본기도와 사제가 주관하는 기도들, 예물기도, 영성체 후 기도, 그리고 특히 감사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지체들인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은혜롭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처하여 있는 곤경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품달하는 것도 아니며 또는 이따금 좋다고 하여 만든 새로운 기도들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한없이 많은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또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행히도 그리스도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전례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역사에 대하여 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째 부분이며 이어서 비로소 우리의 청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청원의 성취가 가망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정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가 나를 안다

그가 나를 안다.
영망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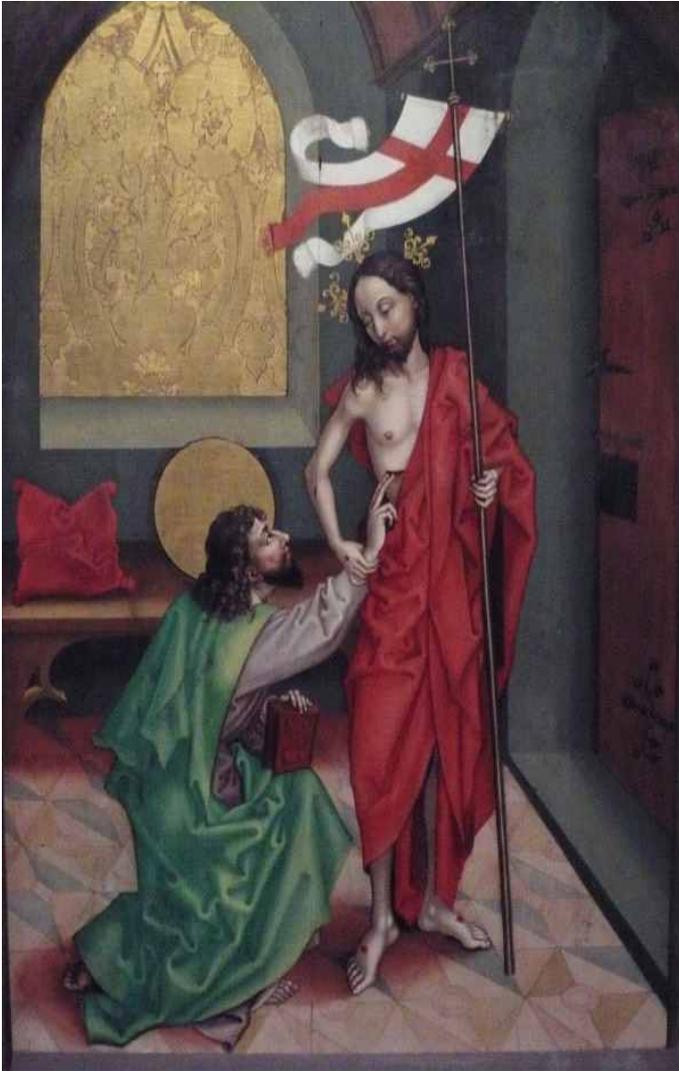
그래서
나는 두렵다.
그가 나를 아는 것이.

그가 나를 안다.
약한 나를.
그가 나를 잡는다.
큰 기대에 찬 손으로.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가 나를 아는 것이.

상화이야기

의심하는 토마스 상인



손가우어는 동판화 화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그림에서도 동판화가 가지는 또렷한 윤곽선과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인물 묘사가 느껴진다(예수님의 손가락의 윤곽선, 예수님과 토마스의 옷자락, 뒤편 의자 위의 방석의 주름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와 같이, 이 그림도 닫힌 문이 있는 공간에 들어 오신(나풀거리는 깃발이, 예수님이 방금 도착하셨음을 시사한다. 깃발의 무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님과 예수님 상처에 손가락을 대어보고 있는 토마스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의 손을 잡고, 당신 상처의 그의 손을 갖다 대고 있으며, 고요하고 침착한 예수님의 표정과 달리, 당황하는 토마스의 표정이 대비적이다.

마틴 손가우어(1445-1491)
15세기 作, 패널 위 유화
도미니코회 수도사 제단화중 일부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2주일: 제주해군 김광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가톨릭신문 창간 90주년 기념 미사
때·곳: 4월 27일(목) 16:00, 명동 주교좌 성당

◆ 2017년 군중장교 입영

때·곳: 4월 26일(수) 13:00, 학생군사학교

◆ 심입 군중수녀 오리엔테이션

때·곳: 4월 28일(금)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공군 준·부사관 연수

때·곳: 4월 29일(토)~30일(주일), 삼위일체 성당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